

고흥군, 관광객 1000만시대 성장 기반 본격 시동

발사체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관광 휴양빌리지 조기 착공 선택·집중 관광인프라 구축

고흥군이 '관광객 1000만 시대' 달성을 목표로 전남 동부권을 대표할 고흥관광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과 '체험형 관광'을 테마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권역별로 세분화해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가장 먼저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한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를 모델로 우주과학 교육·체험시설을 구축해 무중력 체험,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 등 우주관련 체험시설을 총망라한 고흥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고흥우주항공축제와 함께 우주체험에 대한 관광 수요에 대체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적인 축제로 부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흥항공센터 인근에서 8월부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UAM을 이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실증단지 인프라를 차별화된 지역 관광상품 개발에 접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UAM 실증에 이어 전남도와 협력해 UAM 항로 개설 연구용역을 통해 '하늘을 나는 택시'로 인근 시군 관광지까지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권역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고흥군의 균형 발전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다. 고흥만권, 선벨리조트 일원의 고흥만 수변공원에는 음악분수와 야간조명, 오감체험숲 등을 조성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사계절형 복합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해낼 계획이다.

북부권은 해넘이와 해맞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형 관광 포인트로 육성한다. 해넘이 경관을 자랑하는 남양 중산 일몰공원에 관광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새롭게 단장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할 계획이다.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섬, '우도'는 해상인도교를 설치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갯벌 체험과 낚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형 섬'으로 개발한다. 해맞이 명소이자 갯벌체험의 명소인 선정 일원은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민간숙박시설 등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상품과 연계를 도모한다.

팔영산권은 지난해 12월14일, 전남도·(주)LF와 200억원 규모로 체결한 '고흥휴양빌리지 조성사업' 투자 협약을 기반으로 호텔, 숙박원, 미술관, 해양레저시설 등을 건립해 연륙연도교로 연결된 여수와 순천만권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영남면 일원 156만5000㎡ 부지에 56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컨벤션 시설, 분양형 호텔(300실), 단독형 풀빌라(100실), 골프장(27홀),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는 '고흥 해양예술랜드'까지 완공된다면 팔영산권역은 전남 동부권역의 배후 지원단지로서 뿐만 아니라 남해안권의 관광거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천혜의 바다 자원이 있는 거금도는 해안둘레길을 조성하여 남해안 해안명품 거점공간으로 정비해 나가고, 녹동권역

은 소록도와 마리안느·마카렛 나눔연수원을 중심으로 소록도가 갖고 있는 자연미와 소록도의 한을 승화시킨 차별화된 테마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도 녹동항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해 드론중심 도시 고흥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대한민국 드론중심도시, 고흥'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고흥을·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이번에 정부예산에 반영되면서 고흥관광산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고흥군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직선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고흥관광 1000만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관광 핵심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고흥관광시대를 견인하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관광메카로서 입지를 높여나가겠다"며 "관광산업을 첨단 우주산업과 함께 고흥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바닷속 물메기 습성 한눈에" 여수서 특별전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여수 돌산읍 해양수산과학관에서 2월 한 달 겨울철 남해안 대표 특산종인 꼼치(물메기)와 꼼치알을 특별 전시한다고 5일 밝혔다.

평소 보기 어려운 꼼치의 바닷속 습성을 관찰하고 수산자원의 보존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꼼치는 45cm까지 성장하는 대형 어종임에도 1년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단년생 종이다. 최근 남해안 꼼치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원은 2020년부터 자원량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꼼치 수정란을 자체 부화해 치어를 대량 방류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꼼치를 비롯해 명태, 소리 내는 물고기로 알려진 쥐치류·복어류·성대를 비롯해 하와이·홍해 바다의 열대어 등 100여 종 5000여 마리의 생물을 전시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시 '참취나물' 본격 출하

광양시 지역특화작목 '참취나물'이 출하되면서 소비자들의 미각을 자극하고 있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산나물이라 불리는 참취나물은 감기, 인후염, 두통의 약재로 쓰였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등 효능이 전해지고 있다.

광양시는 진상면을 중심으로 130여 농가가 44.5ha의 청정 농토에서 취나물을 재배 중이다. 취나물은 시절재배의 경우 1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출하되고 노지 취나물은 4월 중순부터 출하된다.

박종수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은 "광양 참취나물이 지역 대표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제12회 '2023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국제박람회 부문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박람회를 추구하고 있다.

재해 예방시설인 저류지와 차만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푸른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고, 농경지는 대규모 경관정원으로 변모했다. 시내 중심을 흐르는 동천은 냇길이 되어 정원체험선이 오고가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준비됐다.

순천=배서준 기자

서울 학교급식에 연 200톤 공급 담양군, 서울시 도봉구에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쌀이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 지역 학교급식에 오른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도봉구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 결과, 담양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봉구지역 초·중·고 47개교에 연간 200톤의 담양산 친환경쌀이 공급되게 됐다.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쌀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간 1000톤의 쌀을 서울 성북구 제주, 광주 등지 956개 학교에 공급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 조성 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한다.

곡성군은 청사 1층 로비와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일정 금액 기부자의 이름을 새기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고 5일 밝혔다.

기부 상한액인 500만원 기부자는 골드, 400만원 이상은 실버, 300만원 이상은 브론즈로 현정하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군민증을 수여한다.

곡성군청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기부자의 출신 지역 마을 회관과 기부자가 지정할 마을에 감사패를 게시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감적 제약으로 인해 명예의 전당 대상자를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로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일정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광양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호응

광양시 도시보건지소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건강 앱과 블루투스 기기를 제공해 스스로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이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도시보건지소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건강 앱과 블루투스 기기를 제공해 스스로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이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양시 제공

구례군, 현안 사업 발굴 경제 활성화 박차

3068억원 규모 신규사업 33건 주민 편익 증진사업 집중 발굴

구례군이 지역 성장을 위한 3000억원 규모 현안사업을 발굴해 국·도비 신규 사업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5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3068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33건을 발굴 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의 구례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권역(구례읍·섬진강·화엄지구·온천지구) 사업과 치유산업 육성, 주민 편익 증진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구례읍 권역은 구례읍 도시바람길숲 200억원, 로컬 크리에이팅 스튜디오 조성 30억원, 구례읍 봉성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20억원 섬진강 권역은 섬진강 생태

숲길 미디어아트 조성 50억원, 섬진강 Y자형 보도교 설치사업 423억원, 화엄권역은 화엄사 문화재생산업 등 153억원, 산동 온천권역은 지리산온천 펫 웰니스 파크 조성 400억원, 수락폭포 주변 경관 개선 사업 14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권역 개발을 위해 지리산 치유농업 캠퍼스 조성 300억원, 대한민국 풍수 박물관 조성 150억원, 관내 주요요량 경관개선 사업 70억원, 천년고찰 문화탐방로 무소유길 조성 등 20여억원을 포함한 관광분야에 540억원,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개보수 50억원, 전천 후 육상보조 경기장 조성 60억원, 5일시장 막구조 아케이드 설치공사 24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제 성장·인구 유입·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구례군은 민선 7기에 이어 지난

5년 동안 오산 케이블카 민자 유치, 자연드림파크 3단지 유치, 4+α 권역의 미래지향적 개발을 통해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조성을 위해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치유농업 캠퍼스 조성 등 천혜의 자연과 친환경농업을 연계한 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도와 정부의 역점 방향에 발맞춰 구례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 군수는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펴 가겠다"고 밝혔다.

구례=김상현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